

'96년 석유개발사업 동향



마 삼 열

〈통상산업부 석유개발과장〉

1. 머리말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석유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정부는 1984년 성공불용자제도를 도입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마리브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하는 행운이 겹쳐 해외유전개발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이후 6~7년간 의욕적인 투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90년대 초반부터 유전개발사업을 재점검하기 시작하였고, 업체의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1996년도부터 다각적 지원방법의 모색과 아울러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힘쓰게 되었고, 업계들도 석유개발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여 그 동안의 단순지분참여방식에서 벗

어나 개발 및 생산유전 매입에 나섰다, 산유국 정부와의 직접협상이나 국제입찰을 통해 광권을 획득하고 운영권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석유개발사업 지원정책

정부는 지난 해부터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서서히 증가됨에 따라 금년초 석유개발사업 용자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개정하여 석유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탐사·개발, 생산유전 참여사업의 용자비율을 모두 10%씩 상향 조정하고, 지분제한을 철폐하였다. 탐사사업에서는 의무탐사규정, 광구이전취득비, 서명보너스등 용자대상사업비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탐사기간중 시추에 성공하여 시험생산을 하더라도 상업적

생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일 광구내에서 매장량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용자대상사업비에 포함 시킴으로써 업계의 해외석유탐사광구 진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개발사업 역시 지분제한을 없애고, 개발단계에 있는 유전의 취득 및 지분매입비 등이 개발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등 석유개발업계에 대한 용자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96년도 용자지원예산은 국내대륙봉 70억원, 해외석유개발 656억원등 총 726억원이고, 러시아 가스전 조사사업등 사전 조사사업에 대한 보

조예산은 8억 6천만원으로써 올해의 용자지원액은 95년도 예산 585억원에 비해 12%가 증가한 656억원이었으나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7월말에 이미 대출심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보조예산액 8억 6천만원중 러시아 가스전 개발조사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며, 기타 석유가스 개발조사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그리고 금년부터 해외 석유 개발정보조사 자료 수집비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업체들이 고급 석유개발정보를 공유, 업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러시아 가스개발조사사업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유개공을 주축으로 한라자원, 고합등 7개 업체가 국내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해 러시아와 협상하여 왔으며, 지난 8월말 러시아측에 우리측의 공식참여를 통보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협의중에 있다.

3. 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지난해부터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서서히 증가됨에 따라 금년초 석유개발사업 용자제도를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개정하여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 국내대륙봉 개발

68년도 중자력 탐사후 퇴적층 분포 및 석유부존의 가능성이 제기된 후 본격적인 탄성과 탐사와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이제까지 물리탐사 114,904 L-km와 30공의 시추탐사를 수행하였다. 87년 제 6-1 광구에서 처음으로 약 2,00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발견하였으나, 경제성이 미흡하여 매장량 추가확보를 위한 3차원 정밀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서 경제성 규모의 구조가 확인될 경우 외국석유회사를 유치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황

해분지에 대해서도 금년중 3,112 L-km의 탄성과 탐사를 실시하여 전산처리중에 있다.

또한 이와같이 축적된 탐사자료를 토대로 국내 대륙봉에 대한 종합적인 지질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고 있으며, 동 지질분석을 통해 분지별 석유산출 잠재력을 규명하고 향후 탐사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2) 해외석유개발

〈표-1〉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현황

	1981~95	1996. 10월말	계
○ 진행사업	17개국 30개사업	5개국 12개사업	17개국 38개사업
- 생산	4개국 5개사업	2개국 2개사업	5개국 7개사업
- 개발	3개국 3개사업	-	3개국 3개사업
- 탐사	14개국 22개사업	4개국 10개사업	14개국 28개사업
○ 종료사업	19개국 25개사업	3개국 4개사업	19개국 29개사업
계	29개국 55개사업		29개국 67개사업

해외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코데코 에너지가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초로 96년 10월말 현재까지 29개국 6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17개국에서 3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9개 탐사사업은 상업적 발견에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현재 개발 생산중인 사업은 예멘,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영국, 페루 등 6개국 10개사업이고 탐사사업은 페루, 앙골라, 미국, 리비아 등 14개국 28개사업이다. 이중 금년에 신규 참여한 사업만도 생산광구 2개사업을 포함하여 5개국 12개 사업에 달하고 있다.(표-1 참조)

그동안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96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661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1,265백만달러를 회수하여 약 76%의 회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표-2 참조), 총 투자액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상의 석유개발 용자 지원이 413백만달러, 업체 자체조달이 1,248백만달러로써 정부지원율은 24.9%이다. 지난해부터 개발·생산유전의 매입도 활발히 추진되어 북해 캡틴유전과 페루8광구 등 3개 생산광구를 매입하는데 성공하여 확보가채매장량이 149백만배럴로 증가하였다.

〈표-2〉 해외석유개발사업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1993	1994	1995	1996. 9	계
기금용자 자체조달	252,733	23,818	78,373	58,183	413,107
정부지원	955,429	99,100	73,484	119,917	1,247,930
계	1,208,162	122,918	151,857	178,100	1,661,037

정부에서는 자주개발 원유 도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석유개발 업계도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꾸준히 해외석유개발사업 전개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자주적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자주개발원유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원유 누계 생산실적은 6개 생산광구에서 96년 9월말까지 총 696백만배럴을 생산하여 우리 몫으로 70백만배럴을 배당받았으나, 개발원유도입율은 91년 1.84%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95년말 기준으로 국내원유수입량 1,712천b/d중 자주개발원유는 20천b/d로 1.19%를 차지하였으며, 96년 상반기에는 1,824천b/d 중 19.2천b/d로 1.05%로 낮아졌다. 그러나 페루 8광구의 매입과 금년말로 예상되는 북해 캡틴유전의 생산이 시작되면 도입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맺는말

석유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고 이를 대체 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석유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유지 및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주개발 원유 도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석유개발 업계도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꾸준히 해외석유개발사업 전개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자주적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